

평화를 향한 문학의 꿈

제2회 서울국제문학포럼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유임하 | 문학평론가

이번 포럼의 '평화'라는 주제는 일견 진부하고 모호해 보일지 모르나 현실과 자본의 폭력성, 전쟁과 지역분쟁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의 거점이었고, 식민지의 기억, 전쟁과 분단과 독재, 개발독재와 근대화 등에 이르는 오랜 억압과 폭력에 맞서온 우리 사회의 오랜 경험을 반추하며 세계 문학과 접속하는 통로이기에 적절했다.

문학포럼이라는 축제, 그 상호교류와 상호이해의 장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문학은 주도적으로 문화 담론을 생산하는 중심에 서 있지 않다. 한국문학의 초라해진 행색은 세계화의 광풍이나 자본의 위력 앞에 무형유형의 재화들을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세계에서는 당연한 현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지난 5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문학 축제는 오랜만에 문학의 가치와 존재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 귀중한 시간이었다.

지난 5월 24일에서 26일까지 사흘 동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대산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서울국제문학포럼은 성황리에 끝났다. 5년 만에 다시 열린 이 풍성한 축제의 장은 참석하는 문인들의 면면이나 우수한 학자들의 명망으로 보아 일생 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운 만남이라서, 필자 또한 축제에 걸었던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 어떤 나라도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큰 규모였던지라, 초청된 문인이나 학자들은 시종 부러움을 표했다는 후문도 들렸다. 허나, 이방의 작가들이 토로한 부러움에 우쭐대기보다는 포럼을 통해서 위축된 우리 문학의 현실을 진작시킬 내적 계기를 찾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동아시아발 핵 문제로 인해 북미간에 조성된 새로운



제2회 서울국제문학포럼

냉전질서 안에서, 서울은 그 국제사회가 가진 심각한 우려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장소이다. 바로 이곳에서 세계의 문학인들이 한데 모여 정치적 수사와 기만으로 타락한 평화의 개념을 뒤집고 흔들어 '평화를 위한 글쓰기'를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세계화'의 광포한 동시성, 9.11테러 이후 전개되는 미국의 제국주의화, 민족 분쟁, 가난과 기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테러 등, 인류 모두가 함께 숙고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다.

이 같은 전지구적 현실은 이제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 하나를 일러준다. 이번 포럼에서 얻은 가장 귀한 결실 중의 하나는 이 착잡한 공동체적 현실이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과 맞물려 있다는 안목의 획득이었다. 또한 다시금 문학만의 가치가 무엇인지, 문학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도록 만들었다는 점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번 포럼은 인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문학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상호 교류와 상호 이해의 장을 제공한 셈이다.

평화, 인류 보편의 가치

이번 포럼에서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인사들은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이야기하고, 김지하의 『오적』에 크게 고무되었으며, 김민기의 <아침이슬>을 감동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들을 토로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의 독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문학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힘은 매혹적인 어떤 근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독한 근대의 현실에서 스스로 구축해낸 문학의 역량과, 이에 매혹된 세계 독자들의 정당한 화답이라고 보아야 옳다.

이는 한국 사회가, 한국문학이 전쟁의 참화와 난경을 딛고 인류의 평화를 거론할 자격을 구비했으며, 그 자

격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이미 와다 하루키는 『동북아 공동의 집』(2003)에서 동아시아발 평화공동체의 구상을 통해서 자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이나 식민제국의 경험을 가진 일본보다도, 한국이 식민지의 수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제창할 유일한 주체임을 천명한 바 있다.

'평화'가 절실한 까닭은 무엇이고 영구 평화를 꿈꾸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물론 우리의 현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전쟁과 폭력, 가난과 불평등이 오늘의 인류 사회 전반에 가하는 위해의 심대한 영향력 때문이다.

평화를 향한 문학의 지향이 가진 가치는 일본계 미국 비평가인 마사오 미요시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는 세계화와 그것이 초래한 가난과 기후 변화만이 아니라 식품생산, 인권, 패션과 유행, 전쟁, 예술, 전염병처럼 동시화와 상호 관련성이 증대되는 오늘날, 전지구적인 불안요소와 인류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위협하는 온갖 사회 현상에 대한 우주적인 사유를 제창한다. 그가 말하는 우주적 사유란 오늘의 한국문학에서 현저하게 퇴조해버린 조망력의 일단으로, 통합학문적이고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진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우주적 사유를 통해서 마사오 미요시는 환경 위기의 전지구적 연쇄로부터 희망의 단서를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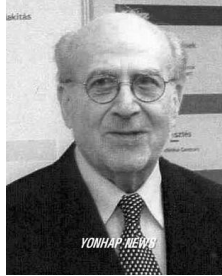
환경 위기는 "전체로서의 지구, 전체로서의 지구주민이 우리 모두에게 유일하게 생존 가능한 상상체"의 출현을 예견하게 해준다. 환경 악화 때문에 "지구를 지구상의 모든 존재에 귀속된 하나의 공동성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것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출현한 이 새로운 동향은 전지구적이거나 보편적인, 또는 포괄적인 지식과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문학의 필요성도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난다. 우주적 사유의 문학이란 모든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지구적인, 달리 표현하면 '지구



시인 고은



시인 김승희



헝가리 출신의 종군작가 티보 머레이



소설가 김연수



칠레의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

생리학'의 조건 속에서 공동체적 사유로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보하는 담론에 가깝다.

한국발 평화문학의 구체적인 모색은 고은에 의해 그 열개가 마련되었다. 자신부터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인의 삶을 시작했다는 고백과 함께, 고은은 정치의 시대와 경제의 시대를 거쳐 문화의 시대로 견인하기 위해, 인간의 침략성을 변화시켜 평화를 실제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사상과 정서를 종합하는 평화문학, 영웅의 무용담이 아니라 민중의 집단적 이상을 담은 평화의 정령을 불러내는 문학을 제창하였다.

그것은 세계 각 지역의 작가들의 평화를 위한 연대와 제휴를 통해 전쟁과 국가폭력을 넘어 타자와 타자의 타자인 자신을 아우르는 대안적 주제를 발굴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최소한의 명제에 해당한다. 이 명제에서 제기된 유효한 참조 틀로는 동아시아 공동어의 구축을 제안한 최원식, 국가간 민족간에 발생하는 모든 착취적 기생관계에 대한 증오와 공분, 모두의 발전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세계화를 제창한 우구기와 시용고, 여성의 침묵을 이끌어내는 구술생애사의 관점을 제안한 조은의 주장이 경청할 만했다. 또한 황석영은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전복시켜 서도동기(西道東技)로 뒤바뀐 현실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이 세계 전반에 평화공동체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

했다.

그에 따르면, 문학이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이란 “각자 자신의 모국어로 자기들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인류라고 하는 보편성에 도달해야” 하는 “평화의 글쓰기”이다.

하지만, 이때 ‘평화’란 동요의 가사처럼 “꽃피는 산골”의 한가로운 세계는 아니다. 평화란 언제나 전쟁의 폐허와 가난, 기아와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는 그 열악한 환경 안에서 동경해온 상상의 산물에 가깝다. 돌이켜 보면, 한국 사회의 평화는 휴전 이후 한국인을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었던 한계상황 속의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가 강요한 무서운 인내와 자기파괴의 아슬아슬한 평화였다.

김승희는 우리의 불안한 평화를 ‘마이크로웨이브파 안에서 옥수수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순간’ 같다고 표현했다. 시적 이미지로만 포착되는 우리 사회의 전율스러운 평화는 냉소와 역설을 넘어 새로운 평화를 준비하는 글쓰기로 바뀌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평화 부재의 현실에서 평화를 거론하는 일은 헝가리 출신의 종군작가 티보 머레이의 발제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1951년 평양 폭격이 맹렬했던 시기와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맺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합쳐 두 번 한반도를 방문했다. 머레이는 50여 년의 세월로 퇴락해버린

이번 포럼에서 얻은 가장 귀한 결실 중의 하나는, 다시금 문학만의 가치가 무엇인지, 문학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자신의 기억에서 꺼낸 평화 부재의 현실을 거론했다. 그는 월북한 영문학자이자 시인인 설정식이 전쟁의 와중에 창작했던 시편 <우정의 서사시>와 그것을 헝가리에서 간행했던 기억을 떠올렸고, 그의 정치적 숙청을 통해서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 부재하는 평화와 정치적 비극을 언급하였다.

제주 4.3사건의 가공할 폭력을 국가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은폐했던 공공기억을 균열내는 기억투쟁의 장으로 문학을 명제화시킨 현기영, 유년의 시기에 자욱하게 침잠한 트라우마와 수많은 여성들의 침묵을 거론하고 있는 오정희와 조은, 독재의 시절에 경험한 언어의 균열과 허위에 대한 공분과 정치적 미학적 실험을 언급한 황지우, 가파른 근대화의 의미와 경로를 성찰한 최윤과 김연수 등의 발제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근대의 전쟁과 국가폭력에 연루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평화적 글쓰기와 작가의 역할

평화적 글쓰기와 그에 따른 작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까닭은, 문학이 글쓰기의 의무로만 그치지 않고 한 사회와 권역 내부에 역동적으로 관여하는 정서적 과감효과 때문이다. 독일 출신 작가인 토마스 브루시히는 이 점에 관해 동구 해체와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예로 들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동구 해체와 소비에트 연방 해체가 폭력과 분쟁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기적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이 기적을 이룬 것은 '일체의 무력반대'라는 구호가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은 협상을 통해서 폭력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얻어냈다. 데모대는 신중한 행동으로 국가 권력자들을 자극하지 않았고 자신들 역시 이를 준수하고 있음을 내보임으로써 혁명의 평화로운 전개가 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려 깊은 작가들과 지식인들이었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확실성에 대해 작가들이 추구해야 할 몫은 '모든 권력'에 대한 거부, 내적 자유와 외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치루어야만 하는 '고통이 주는 즐거움'(볼프 비어만), '자아와 타아의 일여(一如)'(고은)이다. 김광규는 이를 좀더 미시적으로 표현해서 그림으로도 음악, 영화와 연극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문학작품으로서만 읽어낼 수 있는 지점에 문학의 필연적인 존재 이유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작가란 삶의 그늘과 상처, 패배와 고통 쪽에 자리를 마련하는 숙명의 존재이며(오정희), 가난과 기아처럼 인류 모두에게 가하는 허위와 폭력성에 맞서는 존재(공선옥), 현실에서 어떤 희망을 읽어내는 존재(김연수)로서, 인간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끝없이 글쓰기를 수행하는 존재이다.

과연 영구평화란 가능한가? 그러나 영구평화란 지상에 존재하는 답안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칸트의 계몽적 의지가 인류 사회의 전쟁과 모든 폭력들에 맞서기 위해 창안한 것임을 염두에 두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무력한 작가들에게 놓인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부터 점화되어 사회와 집단, 민족과 국가에 이르는 영토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그러한 명백한 전제라는 점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하나의 아포리아이다.

로버트 하스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다, 어떤 전쟁국도 민간인에게 영향을 주는 무기체계나 전략을 사용하지 말 것, 전쟁에 대한 생태학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을 추가로 제안한다. 바로 이 같은 추가조항이야말로 평화를 향한 글쓰기를 수행하는 작가에게 필요한 상상력이다. 그 상상력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거부하며, 지구생태학의 관점에서 가장 구

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인류의 문명적 삶을 구축하는 상상과 실천의 몫을 자임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인류보편의 가치 지향을 보여주는 문학의 아름다운 전통은 칠레 태생의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의 발제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칠레의 마푸체 인디오 문화에서 무사의 대장을 선출할 때 완력이나 민첩성 대신 말하는 능력으로 경쟁시켰다. 무사 대장 후보들은 몇 시간, 몇 날 몇 밤을 시적이고, 균형감각을 갖춘 연설을 통해서 '대지의 자손'인 부족의 지도자로 인준받았던 것이다.

플라톤이 철학자의 공화국을 꿈꾸었던 것처럼, 이 인디오 문화에는 구술문화 전통과 문학을 통해서 공동체를 관장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안목과 지혜를 검증하는 놀랍도록 인간적이고 심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나는 이 문화전통이 동아시아에서도 과거제나 '신언서판 身言書判'을 통한 인간 관별의 오랜 습속과도 서로 통한다고 느꼈다).

세풀베다는 조상의 위대한 인문학적 전통을 이어받아 빵과 평화, 노동과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것을 자신의 문학적 원류,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인문학적 전통과 결속된 작가의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이다.

지금의 한국문학이 앓고 있는 것은 인류보편의 가치에 대한 통찰을 감행하는 거시적 조망력과 진정성의 심

각한 결핍증이다. 그런 까닭에 마거릿 드래블의 지적은 경청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그녀는 문학의 적이 국가에 의한 탄압과 검열만이 아니라 독립적인 문학을 위협하는 대중소비주의의 침략이라고 단언한다. 대중 소비주의는 검열 없이도 대양을 침범하는 조류(藻類)처럼 번식하며 진정한 예술을 잠식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평화는 모든 차이를 말살하는 동일화 내지 동질화로써 정체성을 지우며 예술의 특성을 폭력적으로 평준화시켜버리는 광포한 상업주의의 키치화, 관광상품화에 가까운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문학을 어스비슷한 토속성, 아니면 부르주아적 웰빙 취향, 영화나 채팅에 가까운 서술 속도와 특성으로 엮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동일화의 폭력성에 대한 한 사례일지 모른다.

포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한국의 문학적 지성들은 오랜 심미적 자율성의 신화를 벗어나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을 지구생태학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사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평화라는 주제는 일견 진부하고 모호해 보일지 모르나 현실과 자본의 폭력성, 전쟁과 지역분쟁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의 거점이었고, 식민지의 기억, 전쟁과 분단과 독재, 개발독재와 근대화 등에 이르는 오랜 억압과 폭력에 맞서온 우리 사회의 오랜 경험을 반추하며 세계 문학과 접속하는 통로이기에 적절했다. 🌸